

Basell, mPP 시장개척 주력한다!

ExxonMobil과 크로스 라이선스 ... 2005년 유럽 판매 50만톤 목표

Basell은 mPP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mPP는 그동안 시장점을 확립 및 광범위한 활용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asell 및 ExxonMobil Chemical은 2001년 mPP를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하고 mPP 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럽 및 북미에서 mPP 제품의 도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유럽의 mPP 판매는 2002년 3만톤으로 증가했고, 2003년 10만톤, 2005년 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asell이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mPP는 섬유 뿐만 아니라 컴팩트디스크박스과 같은 사출제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Basell은 공중합체(Copolymer) 및 Random Copolymer mPP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PP 3200만톤 시장에서 mPP의 점유율은 0.1%에 불과한데 Basell의 판매량이 50만톤으로 확대되면 1%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Basell은 Metallocene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고 전통적인 Ziegler-Natta 촉매보다 기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우선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Ziegler-Natta PP 촉매의 급속한 발전이 mPP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메탈로센 고급 폴리올레핀은 비중이 커지고 있고, Basell의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잡고 있다. 공중합체 PP 및 PE 컴파운드는 매출신장률이 약 5%로 Basell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Catalloy, 연료탱크용 특수 PE 및 Polybutene-1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Basell은 유럽 밖에서도 컴파운드 사업을 확대해 일본의 PP 컴파운드 생산능력을 단일 2만톤 플랜트로 대체했고 아르헨티나 Petroquimica Cuyo의 PP 컴파운드 및 BASF의 오스트레일리아 PP 컴파운드 사업을 인수했다.

Basell은 플랜트를 전부 가동하는 2003년 말 Catalloy의 생산능력을 추가할 예정인데 대상지역은 기존 플랜트의 생산량 대부분이 선적되고 있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Basell은 또한 MZCR(Multizone Circulating Reactor)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MZCR 기술은 동형 PP 제품의 특징을 개선한 기체상(Gas-Phase)의 프로세스이다.

Basell은 이태리 Brindisi 플랜트의 Spheripol 프로세스를 MZCR 프로세스로 개조해 신기술 시장의 표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4/01/26>